2019년 7월 제135호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KOREA FISHERIES ASSOCIATION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자율관리어업 남해권 워크숍 개최

제주권 워크숍은 7월 12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6월 27일 자율관리어업 남해권 워크숍에서 공동체 지도자들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19년 자율관리어업 남해권 워크숍이 6월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열렸다. 부산·경남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를 비롯, 일선에서 자율관리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열린 남해권 워크숍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 양문주 부장)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공동체 역할(한국수산회 천명길 컨설턴트) △ 경기 화성 백미리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백미리공동체 이창미 사무장)와 함께 리더십&조직관리 등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임원과 공동체 어업인 간 대화의 시간도 마련돼 어업현안 및 공동체 운영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남해권 워크숍은 전남권, 서해권에 이어 올들어 3번째로 열렸으며, 제주권 워크숍은 7월 12일 제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선유도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이하여 선유도 일원에서 펼쳐진 해양쓰레기 정화 작업에 참여했다. 문 장관은 7월 21일 선유도를 방문해 군산 해양쓰레기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 어업인 300여명과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5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산 앞바다는 4,000여톤이 넘게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 2분기 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이기진)는 6월 12일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금년도 2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잔교, 해상펜션, 가두리양식장 시설 등 해상구조물 제작·판매업체인 ㈜케이엠씨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무실 PC 교체 등 업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천해수어류양식 공동체, 감성돔·볼락 치어 방류

사천해수어류양식공동체가 6월 11일 사천시 비토해양낚시공원 해역 일원에 종묘방류를 하고 있는 모습. 양식어업 공동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자원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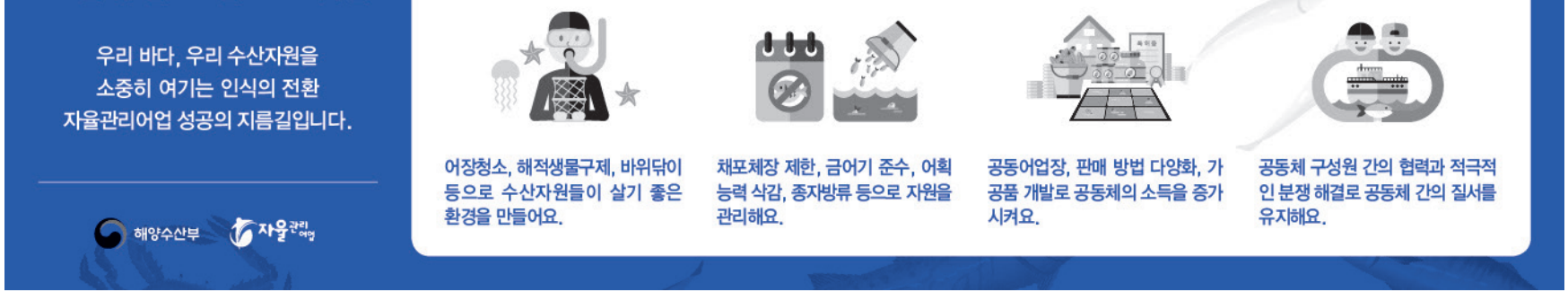
사천해수어류양식 자율관리 공동체(위원장 김정경)는 6월 24일 사천시 비토해양낚시공원 해역 일원에 감성돔 치어 5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종묘 방류는 2019년 참여공동체로 선정돼 지원받은 육성사업비로 실시했다. 공동체는 이에 앞서 6월 11일에도 볼락 종묘 5만여 마리를 같은 지역에 방류했다.

양식어업 공동체의 경우 치어 방류가 공동체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식어업 유형에서 사업비 전액을 종묘 방류에 투입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김정경 위원장은 "치어 방류로 인해 인근 낚시공원 입장객이 더 많이 찾아온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자율관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내 4개 자율관리 공동체 올해로 7번째 한마음 축제 개최

충북 제천시 관내 자율관리 어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제천시 자율관리어업인 한마음 축제는 제천시 관내 금수·청풍·한수·수산 4개 내수면공동체와 제천시 낚시협회 회원 등 200명이 참석하는 화합의 한마당이다. 행사는 매년 4개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한다. 올해는 청풍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강준) 주관으로 6월 17일 오전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이상천 제천시장 등 관내 수산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 단위에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 행사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은 제천시가 처음이다.



해안변 정화 및 수산자원회복 활동

진해연안통발 공동체, 해안변 정화 활동

진해연안통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김철기)는 6월 21일 진해만 해역에서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

진해연안통발 공동체는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해안청소 및 조업 중 수거되는 각종 폐어구 등을 연간 4톤 이상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도서 지역에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도 청소하고 있다. 또한 진해연안통발 공동체는 관내 해역에서 포획되는 어종의 자원관리를 위해 자율적인 규약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고성군연합회, 해안변 대대적 청소

한국자율관리어업 고성군연합회는 5월 31일에 '제24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고성군 하이면 봉화골 해안변에서 바다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청소에는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고성군, 고성사무소, 하이어촌계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7톤, 폐부자 16톤, 폐그물 및 어업폐기물 5톤 등을 수거했다.

수거된 각종 생활쓰레기는 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부자는 군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에서 재활용되고 폐그물 등 어업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다.

사천시 낚시어선업 공동체, 볼락 종묘 방류

사천시 낚시어선업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위원장 정현관)는 6월 25일 사천시 동서동 권역(신수도, 학섬) 해역 일원에 볼락 치어 7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볼락 종자 방류는 2019년 모범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육성사업비로 실시됐다. 작년에도 모범공동체로 지원받은 전액을 감성돔 13만여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올해도 방류를 실시해 자원회복에 앞장서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서해권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요지 – 울산 주전공동체

2013년 건립된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100석 규모 회의실과 1일 50명의 체험객이 숙박할 수 있다.

강원보 주전공동체 위원장이 주 생산품인 돌미역 판매를 위해 자체 마련한 포장재를 들어보이고 있다.

울산의 동구 북쪽 끝에 위치한 주전공동체(강원보 위원장)는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는 마을어업 공동체로 동해에서는 보기 힘든 까만 자갈, 몽돌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전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 마을어장에 백화현상이 확산돼 주력 생산품인 미역의 채취량이 줄어들고, 불법 3중 자망어업이 성행하면서 자원고갈이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1년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했다.

공동체 결성 후 회원들은 먼저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인근 몽돌해변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주전해안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차였다. 이후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분기별로 나잠어업인에 대한 자원관리 교육을 시키는 한편 3~5월, 9~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복 금어기를 설정했다. 대신 봄철에는 돌미역을 채취하고, 가을에는 바위닦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바위닦기는 연 50일, 불가사리 구제는 월 1회 실시하고, 생활 오·폐수의 바다유입을 100% 차단하고 있다.

주전공동체에는 130여명의 회원 중 50여명이 해녀인데, 이들은 전복 종묘 방류시 종패를 직접 확인하고 최적지에 방류함으로써 자원조성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공동체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일지 및 각종 행사 기록을 철저히 하고, 5년치 장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종 장부를 상시 열람 가능토록 하는 등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는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건립(2013년), 체험 준비동 및 사무실 신축(2017년), 나잠회 회의실 및 해녀 탈의장 마련(2016년)뿐 아니라 2.5㎞에 이르는 주전동 해안길에 보행자 테크를 설치해 체험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또한 주전 자연산 돌미역의 포장재를 개발해 전국택배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판을 하고 있으며, 연면적 991㎡의 2층 규모 수산물직매장도 마련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주전공동체는 후릿그물 등 전통어업 계승과 스킨스쿠버 등 레저체험 상품을 개발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어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일본

일본의 내수면양식장 및 어협, 수산기관 등 견학

금년도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나고야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일본답사에는 2018년 신규공동체 위원장 및 회원 11명을 포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단은 일본의 수산시장 및 어협, 수산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우리 어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먼저 일본 나고야 중앙도매시장을 방문해 일본의 수산물 유통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시장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쓰레기를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연수 참가자들은 밝혔다.

일본 니시미가와 어업협동조합을 방문한 연수단의 단체사진.

사메가이 내수면양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연수단.

이어서 니시미가와 어업협동조합과 사메가이 양식장을 방문했다. 사메가이 양식장은 일본 최대 담수호인 '비와호'가 위치한 시가현의 내수면 양식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무지개송어, 곤들메기를 양식하며, 철갑상어를 시험양식하고 있다. 주변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 비와호는 일본 최대의 담수호로 둘레가 241㎞에 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 1,0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송어, 8~11월에는 은어 등 어종에 따라 금어기를 달리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블루길, 베스 등 외래 유해어종은 수시로 채포하여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토부 수산사무소(농림수산과 해양센터)에서는 대략적인 일본의 어업정책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지자체 및 어업단체를 중심으로 자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표지 방류 등을 통해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을 통해 어업인에 대한 자원관리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은 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을 우리 어업인에게 전파하여 자원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권역별 워크숍 발표요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와 공동체 역할

천명길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은 자원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수산정책이다. 자율관리어업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민간에서 자원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관리와 단속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자율관리어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주도하의 획일적인 자원관리방식이 공동체와 협동하면서 지역별, 해역별 맞춤형 관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도 자원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점차 민간차원에서의 관리기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시작하였으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 이외에도, 고질적인 어업갈등 해결효과 그리고 어촌 내 고령자 배려 등의 사회안전망 효과 등 자율관리어업이 지금 우리 어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공동체 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율관리규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 컨설턴트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현재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규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처음 결성할 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한번도 손을 보지 않은 공동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규약은 공동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평가항목에 확인서류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장 및 자원관리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지금 현실에 맞게 변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에서 작성하는 활동일지는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한 공동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기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는 활동일지에 근거해 수산기술센터 또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일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몇 명, 금액, 몇 ㎝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 회의록, 행정관청 확인서, 작업일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

현재 많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고령이어서 평가자료를 일일이 챙기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활동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점수를 매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공동체 회원 중 가급적 젊은 회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의 인적 자원관리도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위원장과 총무(재무담당), 감사, 사무장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 보다는 업무별로 책임자를 정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총괄책임자는 위원장, 어장관리는 A회원, 자원관리는 B회원, 유통관리와 홍보담당은 C와 D 이런 식으로 조직을 재구성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위원장 : 공동체 및 체험마을 총책임자 △간사 : 체험마을 재무 관리 △정보화사무장 : 마을홍보, 홈페이지 관리, 주민교육 △체험사무장 : 매표, 체험안내, 안전교육 △시설관리인 : 체험시설관리, 안전요원 △운영위원 : 마을운영 및 발전 계획 수립 등으로 역할을 분장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마을의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 등과 상호 협조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해수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해양쓰레기 심각성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며 참여 제고

연안 정화의 날인 6월 2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행사에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를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1만 3,000여명이 참여하며,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정화주간 중, 연안 정화의 날인 6월 21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직접 정화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천변 쓰레기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장마철, 태풍 발생 등을 앞두고 해양쓰레기 발생요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정화주간이 끝난 뒤에도 매월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5.31. 울산)에서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여 나갈 계획이다.

산지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 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수산회, 2019년 한·중 민간어업협의회 개최

조업질서 유지방안 논의 … 불법조업 해결방안 요청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 중국어업협회 자오싱우 회장을 대표단장으로 하는 한·중 양국의 민간대표단은 6월 26일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민간어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중국어선 불법 및 위반 조업 문제, 양국 어선간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 문제, 협정수역 어장환경개선 등 민간 수산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한국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위반조업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측에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해상조업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다음 날인 6월 27일에는 중국측 대표단이 해양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한국측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참관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김영규 한국수산회장을 대표단장으로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김명남 옹진수협 상임이사 △이상진 인천수산인협회장 △정영철 근해장어통발선주협회장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최장민 경남부산근해통발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및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이 6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 한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외교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은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장시엔량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오징어 자원관리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방안, 수산양식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바다의 안전 파수꾼'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해양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6월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해 탄생한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실시, 해양교통환경 분석대책 수립, 안전 교육홍보 등 더욱 확대된 해양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식에서 이연승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CI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 직속 '농특위'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가 지난 6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에스타워(16층) 농특위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갖고 1차 위원회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진도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정책실장을 보내 농특위 현판식을 축하했다. 농특위는 현판식 이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농특위 운영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특위는 박진도 위원장 외 정부측 당연직 위원 5명, 농어업인 단체 및 전문가 대표인 민간 위촉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어업 △어촌 △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한국수산회 '수산물이력제 워크숍' 개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첫 해를 맞아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2019년 수산물이력제 워크숍'이 지난 25~26일 이틀간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리조트에서 열렸다.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과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수협 및 업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소규모 다품종인 수산물의 특성상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1년까지 3년간 생굴과 굴비에 대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바다가 미래다', 2019 씨팜쇼(Sea Farm Show)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9 씨팜쇼(Sea Farm Show) 해양수산·양식·식품 수출박람회'를 개최했다. 씨팜쇼(Sea Farm Show)는 2016년에 국내 최초의 양식산업 박람회로 개최돼 올해 4회째를 맞았다.

'바다가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미래양식기술관 △우수 수출기업관 △비즈니스 상담관 △해양스타트업존 △체험존 등으로 13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

또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 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은 해양·수산 및 귀어·귀촌정책을 소개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됐다.

공동체 탐방 / 제천 금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율관리어업으로 청풍호에 어업질서 마련 … 자원조성 위한 현안 해소에 주력

김재호 제천 금수공동체 위원장.

금수공동체 회원들이 자원조성을 위해 소나무 가지를 묶은 어소를 마련해 작업에 나서는 모습.

청풍호 환경 정비를 위해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1985년 댐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내수면 어업활동이 시작됐다. 금수·청풍·한수·수산 등 면 단위로 운영되는 내수면공동체를 중심으로 85명의 어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청풍호. 공식명칭은 충주호이지만, 댐 건설로 수몰지역이 가장 많은 제천에서는 오래전부터 충주호를 청풍호로 부르고 있다.

금수공동체 21명의 어업인들도 청풍호가 조성되면서 어로활동을 시작했다. 각망(17명)과 자망(4명)으로 채포한 쏘가리 등을 중간상인을 통해 식당 등지로 판매하며 나름대로 소득을 올렸지만 무분별한 남획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자원량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어업인들은 10여년 전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면서 청풍호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마련됐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이전까지는 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지요. 지금은 주변환경 정비는 물론 자원조성을 위해 회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금수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김재호(60) 위원장은 공동체 결성이후 어로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규약으로 정하고, 산란에 적합한 어소(소나무 가지) 설치는 물론 불법 밧데리 어로 단속까지 다양한 자원조성 활동을 펼쳤다. 특히 쏘가리 자원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인 금어기를 7월 10일까지로 늘리고, 채포 체장도 18㎝에서 23㎝로 늘렸다.

하지만 공동체 자체적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효율적인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묘방류와 블루길, 베스 등 생태계 교란어종의 구제사업이 중요한데, 이들은 행정관청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연간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천시의 청풍호 치어방류 예산은 수년째 동결되고 있으며, 공동체당 연간 700만원에 불과한 유해어종 퇴치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유해어종 퇴치사업비는 ㎏당 3,000원으로, 산란기 전에 모두 소진될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청풍호의 자원증강 및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증액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바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에서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자율관리 공동체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재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는 공동체 회원 3~4명에게 인건비를 주고 청소작업을 하는데, 공동체에서 직접 참여할 경우 수익금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 공공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제천시 자율관리 어업인 한마음 축제의 산파역을 맡은 김 위원장. 그의 청풍호 현안 해소 노력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 내수면업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